

# 발달단계에 따른 아버지와 아들의 의사소통

## Father-son Communication Across the Developmental Stages

신라대학교 가족학과  
석사여진경\*  
교수전영주  
Dept. of Family Studies, Silla Univ.  
Master : Yeo, Chin-Kyeong  
Professor : Chun, Young-Ju

---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father and son through son's developmental stages focusing on the father-son communication. The researcher conducted the survey among 600 male students including the 5th grade elementary students, the 2nd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 2nd grade high school students residing new areas of town Pusa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t showed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function and content of father-son communication. Also it developmental stages was revealed that there is the quality differences in father-son communication through son's developmental stages. Elementary students was higher levels of father-son communication quality than those of middle and high schools.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 and son is changing through son's developmental stages. If father can recogni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mental stages of their son's, they would be more effectively cope their son's development demand.

---

▲주요어(Key Words) : 아버지와 아들(father-son), 발달단계(developmental stage), 의사소통(communication)

### I. 서론

가족의 구조, 기능, 주기가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출산 및 양육의 기능, 교육 및 사회화의 기능보다 정서적 기능이 부각되고 있다. 가정 내의 정서적 유대가 강화됨에 따라 직장 중심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 내의 긴밀한 정서적 가족관계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아버지들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sup>1)</sup> 가족들의 문화적인

전환과 자녀와 떨어져 사는 아버지의 증가로 대중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보고한 Valarie(2003)의 연구와 남성들의 아버지 역할은 '새로운 아버지상'을 요구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기대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보고한 권영인(2006)의 연구에서 보듯이. 전통적 핵가족이나 확대가족에서 엄부자모가 바람직한 아버지상이었다면 현대는

---

1) 인식의 일환으로 '아버지 학교',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 '딸사랑 아버지모임'과 같은 열린 모임이나 '아빠와 추억 만들기', '아부지 닷컴', '나의 사랑하는 가족 이야기'와 같은 on-line 활동이 나타나게 되었다.

---

\* 주 저 자 : 여진경 (E-mail : yck1116@hanmail.net)

기러기 아빠의 출현, 주말가족, 맞벌이 가족, 한부모 가족, 재혼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증가함에 따라 아버지상들이 달라지고 있다. 또한, 그에 맞게 요구되는 가족 내 아버지 역할도 변화하게 되었으며 아버지 역할에 대한 학문적 관심<sup>2)</sup>이 증가되었고 사회정책적<sup>3)</sup>으로도 남성, 아버지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William et al., 2000).

현대의 남성 가운데 대표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가족관계안에서 부자관계로 같은 성(性)을 소유하면서 수직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영향력이 있는 관계는 가족관계와 남성의 성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게 되는 데, 아들은 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 남성다워지고 초자아 형성의 기초와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배우게 된다. 또한, 아버지와 동일시를 강하게 느낀 아들은 내적인 도덕발달이나 도덕적인 가치와 규칙이 높다(김진화, 2005; Hoffman, 1994; Salt 1991). 그럼에도 아들이 성장할수록, 아버지와 아버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모습을 주위에서 발견하게 된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시점과 원인을 규명하고자 발달단계에 따른 아버지와 아들의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간의 의사소통은 가정생활을 원만하고 행복하게 영위하는 데 필수적이며 매일의 생활에서 가족들 간의 감정 유지와 가족의 상호 활동을 조장시킨다. 이경주와 신효식(1990)은 부자관계가 친밀하고 대화를 나누는 남자는 그렇지 못한 남아에 비해 인성특성이 유의하게 높다고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은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에서 그들만의 대화의 양식을 형성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이런 의사소통의 의미와 방식은 정보 전달 이외에 가족성원간의 관계성, 경계, 연결망, 상호작용에서의 규칙을 정의하는 기능을 하며 가족 내 변화의 속도까지도 조절한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인이 의사소통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에서 2005년에 실시한 가족실태조사 결과 자녀가 아버지와 고민을 논의하는 비율이 4%에 불과하다고 발표하였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대다수 연구의 초점이 어머니의 의사소통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 통합적인 관

점에서 부모-자녀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었다. 자녀에게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중요한 변수임을 선행연구에서 제안하고 있음에도 아버지와 아버지를 독립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었다. 연구대상 또한 청소년기 자녀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유아기나 아동기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였으며 자녀를 성별로, 발달단계별로 세분화한 연구 또한 미비하였다. 이에 자녀의 특정시기에 집중된 연구가 아니라 자녀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연구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연구내용에 있어서도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의사소통유형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의사소통유형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형태라면, 내면적인 형태에 대한 의사소통이 기능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적인 수준은 어떠한 지, 의사소통내용이 다양한지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 지역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발달적 관점에서 아들이 지각한 아버지-아들의 의사소통의 기능, 내용, 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녀가 생각하는 부모와의 친밀도는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와의 친밀도에 비해 낮다고 밝힌 바를 고려하여(여성가족부, 2005)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다는 아들의 입장에서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되어 아들이 지각한 아버지와 아버지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아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아버지-아들의 의사소통에 대한 아들의 지각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아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아버지의 의사소통 전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시점과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더 나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아버지-아들 관계에 대한 발달적 관점

아버지-아들 관계에 대한 발달적 관점을 개인발달적(심리사회적) 관점과 관계발달적(가족발달적)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아들의 개인발달적 관점은 Erikson이 제시한 심리사회적 발달 8단계 중 단계 4와 단계 5에 해당되는 근면성 대 열등감과 자아정체성 대 정체성 혼미의 단계이다. 단계 4는 6세에서 11세 사이에 해당되며 이 시기는 아동기 자아성장의 결정적인 단계로서, 근면성 대 열등

- 2) 2005년 5월 20일, 21일 양일간 한국문화인류학회의 춘계 학술대회에서는 '변화하는 세계 속의 남성성과 남성문화'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의 남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교수신문, 2005. 05. 25). 또한 2005년 11월 26일 한국가정관리학회에서는 '남성, 가정, 생활'이라는 주제로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2006년 4월 28일 한국가족치료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도 '21C 한국남성과 가족치료'라는 주제하에 남성의 위기를 살펴보았다.
- 3) 저출산율 증가로 인한 아버지의 공동육아 필요성 제기와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양성평등한 사회만들기 등이 그 예이다.

감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지적 및 사회적 기술을 요구하게 된다. 단계 5는 자아정체성 대 정체성혼미의 단계로 11세에서 22세에 속하며 긍정적인 자기평가와 부정적인 자기평가 간의 양극적인 갈등과 이를 극복해 가는 과정이다. Erikson은 전생애 발달단계상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간주하였다. Erikson은 청소년기에 정체 위기(identity crisis)가 오지만, 정체감의 형성은 청소년기에 시작되어, 청소년기에 끝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정체감의 형성은 일생동안 계속 발달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자아정체감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부모, 친구, 교사와의 관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교육적 기대, 부모의 양육 태도, 가족의 지지 등)에 정적 또는 부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다(이명자·문병상, 2000; 이승국, 1999).

두번째로, 아버지의 개인발달적 관점인 7단계는 생산성 대 침체감의 발달과업을 갖는다. 이 단계는 다음 세대를 돌보고 길러감으로써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장하고자 하는 중년기 성격발달 특성을 의미한다. Erikson에 의하면, 생산성은 “다음 세대를 설립하고 지도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관심이다”이다. 성인은 ‘나는 누구인가’의 통합된 감정(정체감)을 가지고 결혼이나 사회관계를 통하여 친밀성의 장기간 결속을 설립한다. 그리고나서, 심리사회적으로 전체로서의 대규모 영역의 사회에 관여할 준비를 한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통해 이것은 연속되고 발달된다. 생산성에서의 양육, 지도는 사회적 체제에 이익을 주는 삶의 생산과 산출을 낳는 한편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를 이끌고 증진시키기도 한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발달적 관점은 가족생활주기(family life cycle)로 설명되어지는데, 가족생활주기 중 최근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은 Carter와 McGoldrick(1989; 정문자, 2000)의 6단계론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아버지-아들이 함께 하는 가족생활주기단계는 단계 3과 단계 4에 해당되는 어린 아이가 있는 가족과 청소년이 있는 가족이다. 단계 3에 이르면 성인은 하나의 세대를 이루고 어린 세대의 양육자가 된다. 어린 자녀가 생기면 부모는 자신들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녀양육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된다. 부모가 이러한 전환을 하지 못할 때, 부모로서의 책임을 맡는데 갈등이 있거나 부모 노릇하기를 거부하거나 또는 능력이 없을 때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단계 4에 이르면 비로소 아동은 가족 내에서 새롭게 규정되고 부모의 역할도 달라지게 된다.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은 어린 자녀를 둔 가족과 질적으로 다른 경계선을 설정해야 한다.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이르면, 부모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은 세대간의 관계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준비를 해야 한다. 청소년 자녀는 친구와

새로운 생각들을 가족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전혀 새로운 가치체계를 접하게 할 수도 있다. 이 단계의 궤도에서 벗어난 가족은 새로운 가치에 눈을 가리고 두려움을 느끼며, 때로는 자녀가 어렸을 때 가졌던 관점에 고착되기도 한다. 부모는 자녀생활의 모든 부분들을 통제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성공하기 어렵다.

가족생활주기는 가족관계의 지속적인 변형을 통해 과거에서부터 미래로 끊임없이 움직이게 된다. 특히, 가족관계 중에서도 부모-자녀관계는 혈연으로 맺어진 영속적인 공동 관계로서 사회화의 과정을 통하여 정서적인 관계로 결속되나, 부모의 연령과 자녀의 성장에 따라 변화, 발전하는 관계이다(김경신, 1999). 가족 내의 부모-자녀 관계는 상호 연결된 이차관계를 형성하여 부자관계, 모녀관계, 모자관계 등의 특수한 교환관계를 이룬다. 그리고 이들 관계에서 상호작용과 정서 및 지각 그리고 인지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부모-자녀관계는 시대적으로 다른 세대간의 인간관계이므로 사회적 지위, 권위뿐만 아니라 사상, 가치, 취미 등에 있어서 불가피한 격차가 있게 된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에게 전면적으로 의존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에 변화가 오게 되는데,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의 수준은 감각적인 것에서 정서적인 것으로, 다시 지적인 것으로 진보되어 간다. 자녀가 어릴 때에는 부모의 보존, 양육, 지배관계가 두드러져 자녀는 무조건 부모에게 의존적인 존재이던 것이 청소년기가 되면 심리적 이유를 시작하면서 부모-자녀관계는 성장과 갈등의 관계로 발전한다. 그러나 자녀가 성숙된 인격을 갖춘 성인이 되었을 때에는 부모-자녀관계는 다만 세대를 달리하는 대등한 인간관계로 변하게 된다. 그리하여 어릴 때부터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해 온 의존 욕구를 안정성 있게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다.

Milkie 등(2004)은 생활주기와 발달적 관점에서 볼 때, 자녀와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가에 대한 부모가 느끼는 바는 자녀의 생활단계에 따라 다양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성장하고 그들의 욕구는 변화하고 있으며 학교와 친구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버지-아들은 아주 다른 발달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개인의 발달단계마다 발달과업이 다르고 사회의 요구들이 달랐기에 아버지와 아들이 동 시대에 살고 있지만, 현대 사회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수용성과 지각 또한 다를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따라서, 아버지가 지각하는 본인의 모습보다는 아들이 지각하는 아버지를 살펴보는 것이 현대의 아버지-아들의 관계를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버지-아들은 개인의

발달단계와 과업을 달리하지만, 가족생활주기를 함께 그림으로써 아버지-아들은 상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아들의 관계를 개별적이면서도 통합적인 시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2. 발달단계에 따른 아버지-아들의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상징적이고 상호교류적인 과정, 즉 의미를 창출하고 공유하는 과정으로 둘 이상의 사람들 간에 사실, 생각, 감정의 교환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Burr, 2003).

발달단계별로 아버지와 자녀의 의사소통을 살펴보면, 유아기와 아동기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학력과 경제적 수준, 의사소통량과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주요요인임을 알 수 있다. 정정희(2000)의 '유아와 아버지와 의사소통' 연구에 의하면, '약간 수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아버지가 가장 많았고(79.4%), '매우 거부적'인 의사소통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연령이 높을수록 매우 수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대졸이상의 아버지가 매우 수용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좀 더 수용적이 경향을 보였다. 가족의 형태에 있어서는 대가족보다 핵가족에서 유아의 의사를 좀 더 반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시간과 관련되어서는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수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화시기에 따른 의사소통에서는 아침에 대화를 주로 하는 아버지일수록 수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와 아버지와의 바람직한 관계형성은 청소년기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대화의 단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동기를 대상으로 한 윤미애와 오윤자(2005)의 연구에 의하면, 생활수준이 높고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버지가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였다. 아버지와 자녀 의사소통에 있어서, 역기능적 의사소통보다는 기능적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의 자기효능감, 특히 자기 조절효능감이 높아졌다. 특히, 자녀 연령이 10세일 때 아버지와 가장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였으며, 자녀가 12세일 때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아버지를 믿는 정도는 아버지가 자녀를 믿는 정도보다 낮은 경향이 있다. 자녀는 아버지와 문제가 생기면 말을 하지 않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경향이 아버지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이 초등학교 자녀의 경우 앞으로 청소년기의 비행, 가출 등의 일탈행동을 예방하고, 학업성취, 학교생활적응, 정서지능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청소년기 자녀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옥(1995)의 연구에 의하면,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더 부정적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이 어린 자녀에게 긍정적 대화, 우호적 비언어, 적극적 반응을 더 보이나 10대 중기의 자녀에게는 부정적 대화를 더 많이 하였다. 신효식과 김근화(2004)에 의하면, 중학생 자녀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와 더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 부모-자녀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의사소통 시간이 많고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을 때 중학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김인경(1993), 김애경(2002)에서도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청소년들과의 대화가 부족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개방적 의사소통은 감소하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증가했다. 그리고 고교생의 경우에는 아버지와는 개방적 의사소통이 가장 적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가장 컸다. 백경숙과 권용신(2004)의 청소년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남·여학생 모두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아버지와 자녀 간의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의사소통이 원활이 이루어지면 청소년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많은 도움을 준다. 신희숙과 장윤옥(2001)에서도 아버지가 자녀와 긍정적이고 친근감 넘치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 자녀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과제에 적극적이고 성취지향적인 태도로 과제를 해결하려 노력할 것이며 이는 자녀의 학업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민하영 등(2004)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정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현화된 행동문제에 있어서 부모와의 의사소통 영향력에서 여학생은 간접적이나, 남학생은 부분적이거나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남학생의 외현화된 행동문제는 부모 관계의 질에 의해 부분적으로 민감하게 영향 받는 경향이 있으나, 여학생은 대학생활안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가 어느 정도 적응적이라면 공격적 또는 과잉행동과 같은 외현화된 행동으로 발전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노년기 부모와 성인기 자녀를 대상으로 연구한 신일진과 김형현(1991)의 연구에 의하면, 노부의 의사소통 유형은 권위형, 친밀형, 희생형, 노모의 경우 불성실형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유형과 갈등과의 관계는 노부, 노모 모두 권위형과 불성실형은 정적상관과 정적인 영향으로 갈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밀형은 부적인 상관과 영향을

중으로써 갈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생형은 의미 있는 영향을 거의 주지 못했다. 노부모와 성인 자녀 간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각 유형이 갈등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화정도가 많을수록 갈등이 적었다.

아버지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제는 자녀의 뜻을 읽어야 하는 과제이다. 현대는 자녀가 아버지의 뜻을 살피기보다 아버지가 자녀의 뜻을 읽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지식이나 명령과 같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형태가 아니라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격려해 주는 대화를 통해 자녀와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린 시절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 또한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최고의 의무이자 기쁨이라고 생각한다. 아버지가 되었지만 자녀와 진정한 대화는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아버지를 동일시하고자 하는 아들과의 대화가 참으로 중요함에도 아들과 아버지간의 관계는 가깝고도 먼 관계로 비춰지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아버지의 의사소통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경주 등(1990)은 부자관계가 친밀하고 대화를 나누는 남자는 그렇지 못한 남자에 비해 인성특성이 유의하게 높다고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간의 이상적인 의사소통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의사소통으로써, 상호작용에서 억압을 느끼지 않고 자유로운 감정으로 대화를 할 때, 세대간의 차이를 좁혀 주며 물이해에서 오는 갈등을 감소시켜 주고 좀 더 의미 있고 원만한 아버지-아들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 III.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아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아버지-아들의 의사소통 기능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아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아버지-아들의 의사소통 질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아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아버지-아들의 의사소통 내용에 차이가 있는가?

### IV.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부산 B구, H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

학년, 중학교 2학년,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아들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역할과 아버지-아들의 의사소통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의 연령은 근면성 대 열등감 단계의 발달이 완료되는 초등학교 5학년과 자아정체성 대 정체성혼미의 단계에 속하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다(Carter · McGoldrick, 2000; Erikson, 1997). 자녀청소년기는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청소년 전반기에는 중학생을, 청소년 후반기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입시 문화를 고려하여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시키고, 새로이 적용하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제외시킨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했다.

#### 2) 자료수집

예비 조사는 각 발달단계별 10명씩 총 30명을 대상으로 2005년 6월 19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 예비 조사 결과, 실수로 잘못 기재된 용어와 이해가 어려운 용어를 수정하였다. 또한, 남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사소통내용과 빈도에 관한 13문항에 대한 보충설명(생활철학-‘남자는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을 첨부하였다.

본 조사는 2005년 7월 6일에서 7월 11일까지 1주일간 실시되었다. 표집 지역은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부산의 두 지역(B구와 H구)을 선정하였다. 두 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각 1학교씩 무작위로 선택하였다. 각 학교별로 연구자가 방문하여 교감선생님을 만나 뵙고 동의를 구한 후에, 각 학년 주임선생님을 통해 각 반별 남학생들에게 설문지가 배부되었다. 설문지 회수는 학교에 따라 바로 회수하거나 이튿날 회수하는 절차를 거쳤다.

설문지 응답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20~30분 정도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발달단계별로 각각 200명씩 총 600명이며 각 설문지마다 지역과 발달단계를 구분할 수 있는 연구자가 설정한 일련번호(ID)를 부여하였다. 설문지는 총 600부를 배포하여 586부를 회수하였으며, 이혼, 별거, 동거, 사별, 재혼의 가족은 본 연구에서 제외시켜 근대적 핵가족 형태만 총 533부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척도에 대한 Cronbach  $\alpha$ 를, 사회적 특성에 관해서는 기술통

- 4) 소득, 학력, 직업과 같은 인구사회적 특성이 유사한 B구(화명동)와 H구(해운대)의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다. 두 지역은 신시가지 특성상 중산층이 밀집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연구이다.

계량(빈도, 백분율)을, 연구문제에 대하여서는 ANOVA 분석, 교차분석( $\chi^2$ )을 통해 결과를 산출했다.

## 2. 측정도구

### 1) 의사소통 기능

아버지-아들간 의사소통 기능과 의사소통의 채널 방향성을 살펴보았다. 의사소통 기능은 이기숙(1988)의 연구에서 사용한 6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의사소통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척도로 평가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6점에서 24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아들은 의사소통이 기능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석한다. 의사소통 기능에 대한 Cronbach  $\alpha$ 값은 .80이다.

채널 방향성은 서로의 대화를 보내고 받는 통로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를 뜻하는 것이다. 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의 내용은 '우리 부자 둘 다 서로 대화를 잘 안한다'(상호무대화형), '아들이 주로 말하고 아버지는 듣는 편이다'(아들 송신형), '아버지가 주로 말하고 아들이 듣는 편이다'(아버지 송신형), '우리 부자는 서로 대화를 잘 한다'(상호방향성)이다.

### 2) 의사소통의 질

의사소통의 질적 수준은 아버지-아들이 의사소통에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와 상대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이해 그리고 상대방의 메시지를 어떻게 송신하며 수신할지 아는 정도를 뜻하는 것이다(이기숙, 1988). 이에 본 연구에서는 Olson(1982)의 척도 중 이기숙(1988)이 사용한 의사소통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10문항 중 6문항(8, 9, 10, 11, 12, 15)은 역문항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의사소통의 질을 알아보기 위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척도로 평가하였다. 10문항의 전체 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이다. 이 문항들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자는 현재 그들 부자의 의사소통에 편안함을 느끼며 서로의 의사소통방식을 알고 있으며 서로에 대해 자신이 어떤 의사소통을 취해야 되는 지를 잘 안다고 해석한다. 의사소통 질에 대한 10문항의 신뢰도 Cronbach  $\alpha$  = .71이다.

### 3) 의사소통 내용

이기숙(1988)이 사용한 13문항을 보완 및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가정에서 아버지-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의사소통 내용을 빈도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내용이 많고 자주 의사소통을 나눈다고

해석한다. 13문항의 내용은 나의 일상, 아버지의 일상, 집안 행사(제사, 기념일, 명절, 휴가), 오락 및 여가활동, 생활철학, 종교, 이성관계, 성교육, 성적 및 진로, 친척 및 가족관계, 일상의 감정교환, 시사(정치, 경제), 연애가 소식으로 구성했다.

## V. 결 과

###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본 연구에서 살펴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은 발달단계, 지역, 본인 포함한 형제수, 출생순위, 아들의 종교, 아버지의 연령대, 아버지의 종교, 아버지의 학력, 아버지의 직업, 부모님의 월평균 수입이다.

<표 1>에서 제시하듯이, 연구 대상자의 발달단계를 살펴보면, 초등학생 34.3%, 중학생 32.6%, 고등학생 33%이고 지역 분포는 B구 50.3%, H구 49.7%로 연구 대상자가 발달단계와 지역별로 골고루 표집되었다. 본인 포함한 형제수는 2명의 형제인 경우가 79%로 가장 많았고, 출생순위는 첫째의 비율이 47.5%로 높았고 둘째는 36.2%를 차지했다. 연구 대상자 대부분이 첫째 또는 둘째인 것으로 여겨진다. 아버지의 연령대는 41세~45세의 범위가 48.2%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46세~50세의 범위가 35.1%를 차지했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40대가 대부분인 아버지의 연령대는 7단계인 생산성 대 침체감의 발달과업을 갖는 발달단계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들의 종교와 아버지의 종교를 살펴보면, 불교의 비율이 각각 29.5%, 40.5%로 높다. 아들의 종교와 아버지의 종교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불교가 전체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학력은 대졸이 36.4%로 비율이 가장 높으며, 대학원 졸업이상도 27.6%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학력의 시대에 따른 현상으로 아버지의 학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학력이 높음에 따라 아버지 직업 또한 행정관리직, 전문기술직이 차지하는 빈도가 30.2%로 전문적인 분야에 많이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님의 월평균 수입은 200만원~299만원에 응답한 비율이 20.1%로 가장 높으며, 300만원~399만원대도 18.9%로 높다. 부모님의 월평균 수입을 통해 대부분의 가정들이 200만원~399만원대(39%)의 수입을 가지는 중산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0만원 이상의 수입을 가진 가정들도 36.2%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으로 여겨진다.

&lt;표 1&gt;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N=533

인구사회적 특성		빈도(%)
발달단계	초등	183(34.3)
	중등	174(32.6)
	고등	176(33.0)
거주 지역	화명동	268(50.3)
	해운대	265(49.7)
본인 포함한 형제수	1명	46( 8.6)
	2명	421(79.0)
	3명 이상	64(12.0)
출생순위	외동아	45( 8.4)
	첫째	253(47.5)
	둘째	193(36.2)
	셋째	33( 6.2)
자 종교	기독교	113(21.2)
	천주교	34( 6.4)
	불교	157(29.5)
	무교	215(40.3)
	기타	13( 2.4)
부 연령대	26세~30세	3( .6)
	31세~35세	1( .2)
	36세~40세	39( 7.3)
	41세~45세	257(48.2)
	46세~50세	187(35.1)
	51세~55세	43( 8.1)
부모님의 월평균 수입	100만원 미만	11( 2.1)
	100만원~199만원	52( 9.8)
	200만원~299만원	107(20.1)
	300만원~399만원	101(18.9)
	400만원~499만원	71(13.3)
	500만원~599만원	48( 9.0)
	600만원 이상	74(13.9)
부 학력	중졸 이하	13( 2.4)
	고졸	118(22.1)
	전문대졸	25( 4.7)
	대졸	194(36.4)
	대학원 졸업이상	147(27.6)
부 직업	무직 및 전업주부	2( .4)
	생산기능직	31( 5.8)
	서비스직	32( 6.0)
	판매직	83(15.6)
	사무직	194(36.4)
	행정관리직	56(10.5)
	전문기술직	105(19.7)
	기타(시간제 등)	1( .2)
	부 종교	기독교
천주교		30( 5.6)
불교		216(40.5)
무교		188(35.3)
기타		14( 2.6)

## 2. 발달단계에 따른 아버지-아들의 의사소통 기능과 채널방향성

아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아버지-아들의 의사소통 기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살펴본 후, ANOVA 분석을 통해 <표 2>의 결과를 나타냈다. ANOVA 분석 결과 유의한 F값을 보인 발달단계에 대해 발달단계 간의 평균차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채널방향성은  $X^2$ 분석을 하여 <표 3>의 결과를 나타냈다.

아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아버지-아들의 의사소통 기능에 차이가 있었다. 아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아버지-아들의 의사소통 기능은 F값 15.18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아버지-아들의 의사소통 기능에 대한 평균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Scheffe 검증결과,  $p < .001$  수준에서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아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아버지-아들의 의사소통 기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인 아들은 중·고등학생인 아들에 비해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기능적으로 잘 이루어진다고 지각하고 있다. 아들의 발달단계가 높은 집단일수록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기능적이지 않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아버지-아들의 채널방향성은 <표 3>에서 보듯이, 아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아버지-아들의 채널방향성에  $X^2$ 의 값이 20.42로 발달단계간 유의한 평균차를 보였다. 아들의 발달단계별로 채널방향성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상호방향성(46.2%), 아버지 송신형(26.9%), 아들 송신형(19.3%), 상호무대화형(7.6%)의 순이다. 중학생은 아버지 송신형(36.4%), 상호방향성(35.8%), 상호무대화형(17.6%), 아들 송신형(10.3%)의 순이다. 고등학생은 상호방향성(42.4%), 아버지 송신형(25.6%), 상호무대화형(19.2%), 아들 송신형(12.8%)의 순이다. 전체적으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인 아들은 채널방향성이 상호방향적인 형태를 많이 취하며 중학생인 아들은 아버지가 주로 송신하거나 상호방향적인 형태를 취한다.

## 3. 발달단계에 따른 아버지-아들의 의사소통의 질

아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아버지-아들의 의사소통 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살펴본 후, ANOVA 분석을 통해 <표 2>의 결과를 나타냈다. ANOVA 분석 결과 유의한 F값을 보인 발달단계에 대해 발달단계 간의 평균차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아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아버지-아들의 의사소통 질에 차이가 있었다. 아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의사소통 질은 초

<표 2> 아버지-아들의 의사소통 기능 및 의사소통 질에 대한 발달단계별 일원변량분석

	초등				중등				고등				F
	N	M	SD	S	N	M	SD	S	N	M	SD	S	
의사소통 기능	175	17.41	3.33	a	172	15.72	3.42	b	171	15.65	3.39	b	15.18***
의사소통의 질	167	28.40	4.25	a	167	25.60	4.30	b	172	25.54	4.39	b	23.97***

\*\*\* p<.001

-S(Scheffe)의 a, b는 Scheffe 검증결과 \*\*\* p<.001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나는 집단

-무응답의 경우는 통계처리 과정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전체 사례수가 의사소통기능은 518로, 의사소통의 질은 506명이다.

<표 3> 아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아버지-아들의 채널방향성에 관한 X<sup>2</sup>

	발달단계			Total	X <sup>2</sup>
	초등	중등	고등		
상호무대화형	13 7.6%	29 17.6%	33 19.2%	75 14.8%	20.42**
아버지 송신형	46 26.9%	60 36.4%	44 25.6%	150 29.5%	
아들 송신형	33 19.3%	17 10.3%	22 12.8%	72 14.2%	
상호 방향성	79 46.2%	59 35.8%	73 42.4%	211 41.5%	
Total	171 100.0%	165 100.0%	172 100.0%	508 100.0%	

\*\*\* p<.01

- 무응답의 경우는 통계처리 과정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전체 사례수가 508명이다.

등학생과 중학생 간,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유의한 평균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표 2>에서 제시하듯이, F값이 23.97로 p<.001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아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아버지-아들의 의사소통 질에 평균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평균차는 각각 2.80, 2.86으로 p<.001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초등학생은 중·고등학생에 비해 평균값이 더 크다. 반면에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아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아버지-아들의 의사소통 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의사소통 질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차이를 보였다. 즉, 초등학생 집단은 중·고등학생 집단보다 아버지-아들의 의사소통의 질적 수준이 높았다.

4. 발달단계에 따른 아버지-아들의 의사소통 내용

아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아버지-아들의 의사소통 내용은 13문항을 X<sup>2</sup>분석을 하였다. 아들의 발달단계와 이성관계, 성적 및 진로, 시사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는 아들의 발달단계별로 유의한 평균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들의 발달단계와 나의 일상, 아버지의 일상, 집안 행사, 오락 및 여가활동, 생활철학, 친척 및 가족관계, 종교, 성교육, 일상의 감정교환, 연예가 소식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는 아들의 발달단계별로 유의한 평균차가 나타났다. <표 4>과 같이 주요한 결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아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아버지-아들의 의사소통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표 4>에서 보듯이, 아들의 발달단계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 의사소통 내용은 나의 일상, 아버지의 일상, 집안 행사, 친척 및 가족관계, 일상의 감정교환, 연예가 소식이며 비슷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인 의사소통 내용은 오락 및 여가활동, 생활 철학, 종교이다.



<표 4> 아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아버지-아들의 의사소통 내용 및 빈도(%)

		발달단계			Total	X <sup>2</sup>
		초등	중등	고등		
나의 일상	일주일에 두세번	45 25.0%	40 23.3%	55 31.4%	140 26.6%	28.44***
	거의 매일	65 36.1%	35 20.3%	31 17.7%	131 24.9%	
아버지의 일상	일주일에 두세번	38 21.1%	38 22.1%	38 21.7%	114 21.6%	27.12***
	거의 매일	39 21.2%	9 5.2%	15 8.6%	62 11.8%	
집안 행사	일주일에 두세번	50 28.1%	32 18.6%	30 17.4%	112 22.8%	40.44***
	거의 매일	35 19.7%	17 9.9%	5 2.9%	57 10.9%	
오락 및 여가활동	일주일에 두세번	35 19.4%	32 18.6%	44 25.1%	111 21.1%	18.99*
	거의 매일	44 24.4%	31 18.0%	18 10.3%	93 17.6%	
생활철학	일주일에 두세번	44 24.6%	34 19.8%	34 19.5%	112 21.3%	18.53*
	거의 매일	45 25.1%	33 19.2%	20 11.5%	98 18.7%	
친척 및 가족관계	일주일에 두세번	27 15.3%	32 18.7%	27 15.4%	86 16.4%	30.66***
	거의 매일	38 21.5%	18 10.5%	6 3.4%	62 11.9%	
종교	거의 안한다	122 69.3%	137 80.1%	138 78.9%	397 76.1%	16.22*
	한달에 한번	16 9.1%	10 5.8%	8 4.6%	34 6.5%	
	일주일에 한번	5 2.8%	7 4.1%	7 4.0%	19 3.6%	
	일주일에 두세번	9 5.1%	6 3.5%	13 7.4%	28 5.4%	
	거의 매일	24 13.6%	11 6.4%	9 5.1%	44 8.4%	
	거의 안한다	135 75.4%	157 91.3%	157 89.7%	449 85.4%	
성교육	한달에 한번	21 11.7%	10 5.8%	9 5.1%	40 7.6%	25.87***
	일주일에 한번	9 5.0%	1 .6%	3 1.7%	13 2.5%	
	일주일에 두세번	10 5.6%	1 .6%	5 2.9%	16 3.0%	
	거의 매일	4 2.2%	3 1.7%	1 .6%	8 1.5%	
	일주일에 두세번	33 18.5%	34 19.8%	31 17.8%	98 18.7%	
거의 매일	51 28.7%	19 11.0%	15 8.6%	85 16.2%		
연애가 소식	거의 안한다	140 77.8%	114 66.3%	94 53.7%	348 66.0%	29.51***
	한달에 한번	15 8.3%	25 14.5%	24 13.7%	64 12.1%	
	일주일에 한번	8 4.4%	16 9.3%	31 17.7%	55 10.4%	
	일주일에 두세번	12 6.7%	12 7.0%	20 11.4%	44 8.3%	
	거의 매일	5 2.8%	5 2.9%	6 3.4%	16 3.05	

\* P<.05 \*\*\* p<.001

-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만 제시하였다.

- 무응답의 경우는 통계처리 과정에서 삭제되었으므로, 각 내용별로 전체 사례수가 527명, 522명, 525명, 526명, 523명, 524명이다..

나의 일상, 아버지의 일상, 종교, 성교육에 대한 의사소통 빈도는 초등학생 → 고등학생 → 중학생의 순으로, 초등학생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아버지와 많은 의사소통을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안 행사, 오락 및 여가활동, 생활철학, 친척 및 가족관계, 일상의 감정교환에 대한 의사소통 빈도는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의 순으로, 초등학생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아버지와 많은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애가 소식은 고등학생 → 중학생 → 초등학생 순으로, 고등학생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해 아버지와 많은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초등학생인 아들은 중학생, 고등학생인 아들에 비해 아버지와 다양한 영역에서 의사소통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들의 발달단계가 높은 집단에서 아버지-아들의 의사소통 내용은 다양하지 않으며 횟수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이 아버지와 일주일에 두세번 이상 대화를 나누는 의사소통 내용 중 비율이 높은 것은 나의 일상(초등학생 61.1%, 중학생 43.6%, 고등학생 49.1%)이며 일주일에 한번 이하로 대화를 나누는 의사소통 내용 중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종교(초등학생 81.2%, 중학생 90%, 고등학생 87.5%)와 성교육(초등학생 92.1%, 중학생 97.7%, 고등학생 96.5%)이다.

결론적으로, 아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아버지-아들의 의사소통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관계, 성적 및 진로, 시사에 대한 의사소통 내용과 빈도에는 아들의 발달단계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아들의 일상, 아버지의 일상, 집안 행사, 오락 및 여가활동, 생활철학, 종교, 성교육, 친척 및 가족관계, 일상의 감정교환, 연애가 소식에 대한 의사소통 내용과 빈도에는 아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초등학생인 아들은 중·고등학생인 아들에 비해 아버지와 다양한 영역에서 의사소통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아들의 발달단계가 높은 집단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의사소통 내용은 다양하지 않으며 횟수도 줄어들었다.

## V. 논의

본 연구에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아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아버지-아들의 의사소통을 보면, 초등학생인 아들은 중·고등학생인 아들에 비해 의사소통의 기능면, 내용면, 질적인 면에서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초등학생인 아들은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기능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

각하고 있으며 채널방향성도 아버지와 상호방향적인 형태로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하고 있었다. 의사소통 내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영역에서 의사소통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의사소통의 질적 수준도 아버지와 의사소통에 편안함을 느끼며 서로의 의사소통 방식을 알고 아버지 대해 자신이 어떤 의사소통을 취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아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아버지-아들의 관계는 변화됨을 알 수 있다. 아들의 발달단계가 높아질수록, 아버지-아들간의 의사소통의 기능, 내용과 질은 감소되어진다. 즉 아들의 발달과 함께 아버지와 관계는 소원해지는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특히, 아들이 중학생이 되는 시기에서 많은 관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중학생인 아들은 채널방향성에서 아버지가 주로 송신하거나 경우에 따라 상호방향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며 의사소통 내용 중 아들의 일상과 아버지의 일상에 대해 일주일에 두세번 이상 대화를 나누는 비율에서 각각 43.6%, 27.3%로 가장 낮았다. 연구문제 외에 추가적으로 질문한 문항 중 '현재 하루에 아버지와 대화하는 평균 시간'을 살펴보면, 중학생이 되면서 평균시간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20분 미만이다'에 초등학생은 29.8%로 응답하였으나 중학생은 52.9%, 고등학생은 64.8%로 응답하였다. '현재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누는 사람 1순위'에 대한 응답에서도 의사소통의 대상이 중학생이 되면서 달라지고 있었다. 초등학생인 아들은 아버지 14.9%, 어머니 44.8%, 친구 19.0%로 응답하였으나 중학생인 아들은 아버지 8.9%, 어머니 22.0%, 친구 51.2%, 고등학생인 아들은 아버지 1.8%, 어머니 26.3%, 친구 63.2%로 응답하였다. 중학생인 아들에게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점차 가족에서 외부세계로 시각이 옮겨지게 되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중학생이 되면서 증가된 사교육, 중학생이 되었지만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양육방식과 역할 등도 주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중학생에 대한 이해와 그에 적절한 아버지의 대응과 전략이 필요하다. 외부로 점차 시각을 돌리는 중학생인 아들에게 외부의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배려도 필요하겠으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가족이 주는 친밀함도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아들의 경험과 느낌을 수용하는 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선 선행연구(신효식·김근화, 2004; 김애경, 2002, 신향숙·장윤옥, 2001; 김순옥, 1995; 김인경 1993)와 여성가족부에서 2005년에 실시한 가족실태조사에서 아버지와 고민을 논의하는 비율이 4%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바와 같이, 자녀들이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와 의사소통을 하는 비율이 저조한 것은 이번 연구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의사소통 내용 중 '거의 안한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성교육이었다. 초등학교는 75.4%, 중학생은 91.3%, 고등학생은 89.7%이다. 성이란 주제는 규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주제가 아닐 수도 있겠으나 아들은 동일시 대상인 아버지를 통해 성역할을 배우고 성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게 됨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이 성에 대한 대화가 부자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되면 급격한 신체 변화와 성호르몬 분비로 성욕이 생겨나며 자위행위로 적절한 성욕의 통제방식을 찾게 된다. 초등학교생인 아들에 비해 더 성교육에 대한 대화가 더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로도 발달단계에 맞는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많은 정보들을 무분별하게 흡수하여 잘못된 성지식과 성 관념을 가지지 않도록 아버지가 용기를 가지고 아들의 성교육에 직접 참여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대는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여러 인식들이 전환되고 있다.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즉각적이고 적절한 아버지들의 역할 수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아버지의 독특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만하고 친밀한 아버지-아들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공감과 경청이 잘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해야 할 것이다. 일방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으며, 상호작용에서 역압을 느끼지 않고 원할 때마다 자유로운 감정으로 쉽게 대화할 수 있는 장이 열려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반영한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아들의 2인 관계에 대한 연구였으나 아들이 일방적으로 지각한 아버지-아들의 의사소통에 대한 응답에 의존하였다. 초등학교의 단계는 구체적인 조작에 의해, 중학생 단계는 형식적 조작에 의해 지각되는 것을 미루어볼 때, 아버지 관계에 대한 결과들이 단편적인 관점일 수 있을 것이나, 아버지를 연구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는 유사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해 지각한 결과가 더 많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아버지의 역할 전환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추후, 아버지-아들 두세대가 동시에 지각하는 아버지-아들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를 보완해야 할 것이며 좀 더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둘째, 아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아버지-아들의 관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질적 변화가 일어났다. 중학생이 되면

서 사교육이 가중되는 우리나라 교육현실,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양육방식과 역할 및 태도 등도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아버지-아들의 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여러 요인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아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아들의 발달단계를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에 국한시켜 살펴보았다. 취학전 아동과 성인 아들이 지각하는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선 알 수가 없었다. 취학전 아동에서부터 성인기 자녀에 이르기까지 전생애적 관점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척도와 설문지를 개발하여 다양한 발달단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넷째, 전통적인 핵가족의 아버지-아들 관계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한부모가족, 분거가족(비동거가족), 동거가족, 입양가족, 공동체 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서의 아버지-아들 관계에 대한 연구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의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이 아들의 연령에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아버지 교육프로그램을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아들의 발달단계별로 대상을 모집하여 그 시기에 적절한 아버지 교육프로그램이 이뤄진다면 아버지들이 아들의 발달단계에 맞게 대응하기가 용이해질 것이며 교육에 참가한 사람들과 공감대가 잘 이루어져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또한,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참여하는 아버지 교육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의 전환에 거시적인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아버지가 결혼적용기에서 아동기로 전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자녀에 관한 매체들이 영아, 유아, 아동기에 편중되어 있어 쉽게 아버지들이 이 시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용이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청소년기에 관한 정보들은 성적과 진로에 집중되어 있고 가족과의 관계, 부모의 역할과 관련되어서는 정보가 미약한 상황이다. 청소년 전문가나 매체를 개발하는 기관에서는 청소년기 이후의 부모의 역할 특히 아버지의 역할과 양육에 관련된 정보집을 제작해야 할 것이며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세미나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할 수 있는 장들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야에 많은 전문가들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육아교실이나 부모교실 등이 어머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아버지가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되도록 아버지 시간대를 고려하여 계획,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국가 정책 차원에서 공동양육에 대한 시민교육을 실시하거나 다큐멘터리가 제작 및 배포되어져 국민들의 의식을 함양시켜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업에서도 기업차원에서의 가족친화정책을 세워 남자들이 가정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남성 특히 아버지들의 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현장에서 아버지교육을 실시해 본 결과, 의식의 변화가 아버지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지만 전통적인 남성성에 대한 가치관과 생활양식들로 인해 변화된 사회가 요구하는 아버지 역할에 적응하기 어려워하고 있었다. 양성평등교육 등을 통해 아버지들의 의식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아버지 역할을 힘들어하는 아버지들의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한 다고 본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첫째, 대부분의 연구들이 아들의 특정한 단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는 초등학교 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발달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아버지와 관계 변화를 살펴보았다는 것이다. 현 시대가 새로운 아버지상과 아버지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는 면에서 아버지에 대한 많은 시사점과 소원해지기 쉬운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 기초 자료를 제공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는 각 발달단계에 맞는 아버지 교육 및 상담, 세대간의 이해와 아버지-아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로, 기존의 연구가 아버지-아들의 의사소통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으나 제한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점에 반해, 이 연구는 아들의 발달단계별로 아버지-아들의 의사소통 기능, 내용과 질적인 면을 살펴봄으로써 아버지-아들의 의사소통 연구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 접수일 : 2006년 05월 15일

□ 심사일 : 2006년 06월 14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01월 23일

#### 【참 고 문 헌】

권영인(2006). 50:50을 향하여: 한국 아버지들의 일-가족 균형 잡기. 한국가족관계학회: 춘계학술대회.

- 김경신(1999 n.d). 가족관계와 청소년. 한국가족복지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 김순옥(1995). 10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사소통행위 분석 - 부모 교육과 관련하여-. 대한가정학회지, 33(6), 1-10.
- 김애경(2001). 아동과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행동: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2(3), 271-285.
- 김인경(1993).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가족유형 및 가족 의사소통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96-119.
- 김진희(2005). 남성의 아버지 역할 수행과 유능감에 관한 연구 -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남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13-123.
- 민하영 · 이윤주 · 이영미(2004). 대학생의 내면화 및 외현화행동 동문제:부모와의 의사소통과 대학생활적응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17-27.
- 박아청 · 이경혜(1997).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이론에서 나타난 생성감에 관한 연구. 교육학논총, 17, 1-18.
- 백경숙 · 권용신(2004).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6(2), 87-99.
- 신일지 · 김형현(1991).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27-44.
- 신향숙 · 장윤옥(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189-202.
- 신효식 · 김근화(2004). 중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47-58.
- 윤미애 · 오윤자(2005). 아버지-자녀의 의사소통유형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 초등학교생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14(1), 115-129.
- 이경주 · 신효식(1990). 청년기 자녀의 아버지와 커뮤니케이션과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1-13.
- 이기숙(1988). 가족주기에 따른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1), 167-187.
- 이명자 · 문병상(2000). 청년기의 발달 특성. 발육발달, 8(1), 97-107.
- 정리다모(2001). 부모-자녀간의 언어상호작용과 자녀의 감성지능의 관계.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정정희(2000).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Burr, W. et al.(2003). 새로 보는 가족관계학. 도서출판 하우.
- Cater, B. McGoldrick, M. 정문자 역(2000). 가족생활주기와 치료적 개입.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Milkie, M. A., Mattingly, M. J., Nomaguchi, K. M., Bianchi, S. M., & Robinson, J. P.(2004). The time squeeze: Parental statuses and feelings about time with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6(3), 739-761.
- Valarie, K.(2003). The influence of religion on fathers' relationships with their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5(2), 382-395.
- Willam, M., Paul, A., R. D. & Lamb, M. E.(2000). Scholarship on fatherhood in the 1990s and beyon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4), 1173-1191.